‘다향골 가을 음악회’ 성황리 마쳐

천주교 보성성당 주최로 지난 11일 보성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렸던 ‘다향골 가을 음악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

이날 음악회에는 정종해 군수를 비롯, 임영수 군의원, 송종의 신부(PBC 평화방송 전 사장), 자황 해남광보사 주지, 김달음 목사 등 700여 명의 음악애호가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다.

조영대 보성성당 주임신부는 “이번 음악회가 각 종교를 떠나 음악을 사랑하는 군민과 애호가들이 함께 문화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음악을 사랑하고 아끼는 모든 분들이 함께 기쁨과 희망을 나눌 수 있도록 보다 알차고 아름다운 음악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안구일기자 giahn@

농협장성지부, 동전모아 이웃사랑 실천

농협장성군지부(지부장 조일윤) 직원 30여명이 평소 쓰고 남은 동전을 사랑의 돼지저금통에 모아 불우이웃돕기에 나섰다.

조일윤 지부장과 유영자 여직원회장은 지난 17일 장성읍 영천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상록원을 찾아 현금 50만원과 라면 10상자를 전달하고 격려했다. /장성=고재빈기자 jbgo@

해남천 자연생태하천 거듭난다

2008년까지 61억 들여 준설·습지조성
부래잠옥 등 친환경식물 심어 수질정화

오는 2008년까지 60억9천여만원이 투입돼 자연생태 하천으로 탈바꿈하게 될 해남천.

해남읍을 관통하는 해남천이 자연형 생태 하천으로 탈바꿈된다.

해남군은 국비 42억6천4백만원과 지방비 18억2천7백만원 등 총 60억9천1백만원을 들여 2007년부터 2년간 금강저수지 하단으로부터 해남읍 복평리까지 해남천 일대 8.6㎞에 대한 정비사업을 벌인다.

내년에는 21억8천여만원의 예산으로 1만8천t의 퇴적물 준설과 5천500㎡의 하상정리, 3천100㎡의 습지조성 사업이 실시된다.

또 자갈과 나무 등을 이용해 여울이나 소를 조성하고 수질정화를 위해 갈대나 미나리, 부래잠옥 등 친환경 식물도 심을 계획이다.

해남천은 그동안 하천 수량이 줄어들면서 악취와 오염이 발생하고 오·하수도 대량 유입돼 인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 왔다.

특히 최근 10여년 동안 2회에 걸쳐 해남천으로 유입되는 생활오수 유입을 막기 위해 하수 관거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됐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군은 이에따라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연내 3천만원을 들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는 등 사업 착수단계에서부터 전문기관의 검증과 지역주민들의 여론수렴을 거쳐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그동안 해남천이 읍민의 젖줄 역할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만큼은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

‘친환경 농산물 교육’ 호응
농협 강진지부

농협 강진군지부(지부장 이강섭)는 지난 16일 강진군 문화회관에서 농협 임직원 및 직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과 판매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김선곤(전남도 농업기술원)연구원의 ‘친환경 우수 농산물 생산과 효율적 판매를 위한 마케팅 교육’에 이어 한두석(농협 창녕교육원) 교수의 ‘개방화 시대를 맞은 농협 임직원의 역할과 자세’에 대한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강섭 강진군지부장은 “강진군 농협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수도권과 영남권 대형 유통시설에서 강진쌀이 판매되고 있다”며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강진군의 장려품종인 ‘호평 벼’ 확대재배와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늘리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 성황

제 4회 고창 고인돌마라톤대회가 19일 7천여명의 마라토너와 가족들이 참가한 가운데 공설운동장을 출발해 고인돌공원→부안 삼거리를 돌아오는 코스에서 개최됐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외국종에 로열티’… 국내품종 딸기 재배 는다
전남도 농기원, 매향·설향 등 120만본 보급

2009년 말로 예정된 외국산 딸기에 대한 로열티 부과를 앞두고 국내산 딸기 품종 보급이 확대되고 있다.

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딸기 주산단지인 순천과 담양, 화순, 함평 등 7개 시·군에서 140농가를 대상으로 품종별 선호도 표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내산 품종의 선호도가 지난 해 보다 2배 정도 증가했고, 외국산 품종은 지난 해 보다 2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에는 전국 재배면적 7천여ha의 12.7%인 890여ha의 딸기가 재배되고 있으나 80~90% 정도가 로열티를 부담해야 할 일본 품종이어서 국내산 품종 대체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따라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로열티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년에 순천시와 담양, 화순, 함평 등 7개 시·군에 매향, 설향, 선홍, 조홍 등 국내산 우량묘 120만본을 농가에 보급했다.

특히 금년에 증식한 ‘매향’은 크고 단단하며 모양이 좋아 유통이나 수출용으로 적합하며 ‘설향’은 수량이 많고 과실이 큰데다 병해충에 강해 농가와 소비자 기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남도농업기술원은 국내 육성품종에 대한 농가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현장 기술지원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송기동기자 song@

동신대 전력전문인력 양성대학 선정
2년간 13억 지원 받아

동신대가 전력산업 인력 양성 대학으로 선정됐다. 동신대는 19일 “공대 전기공학과가 전력전문인력 양성과 전공능력 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인력양성 대학으로 선정돼 2년간 13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는다”고 밝혔다.

동신대는 이 사업비를 활용, 관련 학과의 장학금 확대와 조명 및 전력설비 설계 작품경진대회 주최, 실험실습 기자재 확보, 산업체와연구소 전문가 초청 특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산자부와 한전, 나주시 등이 지원하며 금호전기㈜와 전력연구원, 한국전기공사협회 광주시회 등 20여개 기관과 도쿄공업대학 등 일본과 중국의 대학 4곳도 참여한다. 동신대 관계자는 “호남지역 4년제 대학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산·학·연·관이 인력양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계획을 세운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나주=정칠현기자 chjung@